

돈 끼호테의 '광기'를 재정의하다

국어국문학과 202127779 고다효

<목차>

1. 들어가며

2. 미치광이 '돈 끼호테'의 삶

- 2.1. 반백 살 노인의 세상을 뒤집은 '기사 소설'
- 2.2. 일반적인 '정상(正常)'의 개념 반대편에 선 돈 끼호테
- 2.3. 돈 끼호테가 '미침'으로써 얻은 것

3. 나오며

4. 참고문헌

1. 들어가며

“돈 끼호테를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곧 『돈 끼호테』가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된다. “고전(古典)”이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¹⁾을 말한다. 이것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간절히 원하고, 깨달는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기에 시공간을 관통하여 수많은 인간에게 공감과 여운을 남긴다. 『돈 끼호테』는 주인공 ‘돈 끼호테’의 여정을 통해 ‘고전’으로써의 이러한 가치를 드러낸다.

앞서 던졌던 질문에 간단히 답해 보자면, 돈 끼호테는 미친 것이 맞다. 기사 소설에 폭

1) 「고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6519&searchKeywordTo=3>,
(2021.12.25.)

빠져있는 그가 하는 무모한 행동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칭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미침’은 정신병이다. 그러나 그가 무모한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미침’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돈 끼호테의 ‘미침’은 나름 확고한 신념이 있다. 그렇기에 그의 ‘미침’은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 그의 광기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사랑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어긋난 세상을 바로 잡고자 했다. 기사로서의 정의를 지키고, 약자들을 돕고, 의리를 실천하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을 잊지 않았던 그는, 거둬드는 패배와 실패 그리고 타인의 손가락질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꿈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몰두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돈 끼호테가 미쳐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의 ‘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돈 끼호테의 ‘미침’을 동기 - 일상 - 결과의 순서로 나누어 살펴보면, 『돈 끼호테』가 ‘고전’으로써 갖는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2. 미치광이 ‘돈 끼호테’의 삶

2.1. 반백 살 노인의 세상을 뒤집은 ‘기사 소설’

라 만차에 사는 어느 반백 살 노인에 불과했던 알론소 키하노의 삶은 ‘기사 소설’을 마주하며, 180도 달라졌다. 그는 엄청난 양의 기사 소설을 정독하며, 자신도 소설 속 인물들처럼 기사로서 모험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다진다. 그는 ‘돈 끼호테’가 됨으로서 기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따라 하고, 그들과 똑같은 용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면 상상이나 사소한 흥내 정도에 그쳤을 것들을, 그는 진지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도 자신이 지금 방랑기사가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랑기사가 되어 칼을 차고 말을 타고서 모험을 찾아 세상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책에서 읽은 대로 방랑기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 수행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모든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세상일을 해결해줌으로써 영원한 명예와 명성을 얻어야겠다는 각오였다.”²⁾

2)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 끼호테 1』, 민용태 옮김, 창비, 2005, 48쪽.

위 구절을 보면, 돈 끼호떼가 세상의 정의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다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5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불의와 억압이 가득한 세상으로의 모험을 시작한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답답하게 여기고, 본인이 정의를 직접 구현하는 기사되어 세상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자신이 방랑기사라는 망상에 몰입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또한,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미지의 여성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녀에게 기사로서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

돈 끼호떼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결심하고 또, 여러 형태로 실천한 사람이다. 정의감과 인류애로 가득 찬 돈 끼호떼의 기사도를 향한 열망은 지루한 일상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도록 만들었다. 이는 비로소 그의 세상에 새로운 ‘꿈’이라는 것이 생겼음을 뜻한다. 수많은 기사 소설을 읽고 자신의 환상과 이상에 빠져 살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무묘한 일상 속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사 소설은 돈 끼호떼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동시에 꿈을 꾸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기사 소설에 미쳤던 돈 끼호떼는 이제 자신의 목표에 미치기(다다르기) 위해 노력한다. 기사로서의 목표와 사랑에 미쳐있는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광기에서 비롯한 정열로 뚫고 나간다. 결국 기사 소설은 돈 끼호떼에게 그 자체로 삶의 희망이자 변화의 동기가 되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 움직인다.

2.2. 일반적인 ‘정상(正常)’의 개념 반대편에 선 돈 끼호떼

미쳐버린 돈 끼호떼, 사람들이 보는 그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고, 모두가 그를 향해 불가능한 일에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미치광이라며 비난했다. 주막을 성으로 착각해 주막의 아낙네에게 기사의 작위를 받고, 마법의 약이라며 이상하게 제조한 음료를 마시고, 언덕 위의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뛰어들었다가 상처를 입고, 양 떼를 적군으로 착각하고 달려드는 등 ‘무모하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정말이지 그 빌어먹을, 천번만번 빌어먹어도 쌀 기사 소설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시다니요!”³⁾

3)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 끼호떼 1』, 민용태 옮김, 창비, 2005, 89쪽.

모두가 돈 끼호떼를 ‘비정상(非正常)’이라 손가락질하고, 기사 소설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수모와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다. 냉혹한 현실은 끊임없이 그를 ‘승리’와 ‘정상(正常) 범주’ 밖으로 몰아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자신을 비웃는 그들의 시선과 행동은 기사도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해와 용서의 자세를 보였다.

돈 끼호떼는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누구보다 용감히 부정에 맞서는 강골이다. 그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한다. 쇠를 넘긴 나이와 쇠잔한 몸을 지니고도, 진지한 태도로 매 순간에 임했다. 또한, 갖은 고난과 역경에도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다.

돈 끼호떼는 타인의 시선과 거둬지는 실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절대적 가치인 정의를 추구했다. 차가운 현실은 자기 생각과 행동을 가장 중시하는 그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는 쫓대 있게 자신의 이상을 밀어붙이며, 모두가 가지 않는 문을 두드렸다.

2.3. 돈 끼호떼가 ‘미침’으로써 얻은 것

돈 끼호떼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이상을 가졌다. 그렇기에 누구도 열어보려 하지 않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쉽 없이 달렸다. 그는 미지의 여성 돌시네아 델 토보소를 사랑하고, 강대하고 막강한 적의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현실적인 벽에 굴하지 않는 다소 무모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

냉소적인 주위의 시선과 잇단 패배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끼호떼가 ‘기사로서의 삶’을 정말 동경하고 사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기사로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했고, 자신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돈 끼호떼는 자신의 목표하는 세상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의와 평등이 사라진 세상에서 정의와 평등을 외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올바른 세상을 향해 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의 동기인 ‘기사 소설’에 ‘미침’으로써 그가 얻은 것은 분명히 있다. 바로 ‘꿈’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기에 세상의 변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서는 평범한 50세 노인이 아닌 ‘기사’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했고, 그 덕분에 목표와 사랑이 존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꿈’은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을 바라게 한다. 그렇기에 ‘꿈’이 있었던 돈 끼호떼는 현실

에 안주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상적인 꿈을 갖고, 그 꿈을 추구했기에 명확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한정된 에너지를 자신의 절대적 가치인 정의에 쏟을 수 있었다. 그는 기사 소설에 미침으로써 꿈에 미치게 되었고, 꿈에 미침으로써 따분한 삶의 원동력을 얻고, 세상의 변화에 미치는(도달하는) 첫걸음을 땔 수 있었다.

3. 나오며

지금까지 돈 끼호테가 미치광이가 된 과정을 둘러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그것에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이를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치에 미쳐야 한다. 미칠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자신이 꿈꾸는 무언가에 도달하고, 나아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미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질병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광기로 보일 정도로 미친 듯이 몰두하지 않고는 결코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렇기에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쳐야 한다. 목표에 미치기 위해서는 미쳐야 하는 것이다. 목표에 미치지(다다르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얻는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진정한 실패는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변화의 기회는 돈 끼호테처럼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으며, 미치는 것은, 삶에 용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따라서 우리는 꿈을 잃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며, 도전과 꿈을 향해 주저 없이 달려야 한다.

『돈 끼호테』는 “『돈 끼호테』 이후에 쓰인 소설은 『돈 끼호테』를 다시 쓴 것이거나, 그 일부를 쓰는 것”이라는 극찬이 있을 만큼 최고의 고전으로 뽑힌다. 이런 『돈 끼호테』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로 현실에서 매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면을 보는 것 같고,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포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유서 깊은 고전 『돈 끼호테』는 용감한 도전 정신,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 갖는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전정신 등을 이야기한다.

4. 참고문헌

- 「고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6519&searchKeywordTo=3>, (2021.12.25.)
-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 키호테 1』, 민용태 옮김, 창비, 2005,